이렇게 들었다

禪, 인류의 대안

"한 생각 맑은마음 부처 이룬다

21세기의 인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대안으로 그 어느때보다 선(禪)이 주목받고 있다. 참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선관련 서적이 속속 출간되고 있으며 패션, 인테리어, 화장 등 의식주에도 선 스타일이 유행이다. 동국대 한국선학회가 내년 3월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최근 가졌고, 불교선학연구원은 '21세기와 한국선'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자성을 바로 볼수있는 최상의 길이라는 선. 선과 관련한 경전과 조사들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만일 잠깐동안만이라도 좌선하면 항하사수(恒河沙數)의 보탑(寶塔)을 쌓은 것보다 나으니라. 보탑은 마침내 허물어져 티끌로 돌아가지만 한 생각 맑은 마음은 필경 부처를 이룬다. 〈육조단경〉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일체 번뇌가 끊긴 대해탈에 이르는 근본이며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고 부처님의 조(祖)가 된다. 〈홍인대사〉

▩가는 것도 앉는 것도 참선뿐이라 어묵동정 언제나 편안하구나. 창과 칼을 들이대도 늘 태평하고 독약을 먹인대도 늘 한가롭네. 〈선종영가집〉

▩선이 곧 움직임이라고 한 것은 세간의 선이라는 것이 비록 산란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계의 모양을 취하는 마음을 내어 그 움직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능히 이러한 움직임마저 여읜 선이라야 능히 참다운 선정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생하지 않는 선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참된 선정은 그 성품에 생하고 동함이 없으므로 선의 성품은 무생이라 한 것이며 그러면서도 단순한 무생이 아니라 또한 적멸에 머무름도 없으므로 선의 성품은 무주라고 한 것이다. 〈원효어록〉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함도 아니고 청정에 집착함도 아니며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아니다. 움직이지 않음(不動)을 닦으려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의 옳고 그름과 선악과 허물을 보지 말라. 이것이 자성(自性)의 움직이지 않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은 움직이지 않으나 입을 열면 남의 시비 장단과 좋고 나쁨을 말하게 되니 이것은 도(道)를 등지는 것이다. 마음에 집착하거나 청정에 집착하면 곧 도에 막히니라. 〈육조단경 좌선품〉

▩불제자들은 각(覺)과 관(觀)을 쉬고 마음의 평정을 취하여 정(定)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2선을 얻는다. 〈중아함경〉

▩마음을 관하는 이 한가지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이니, 이 법이 가장 간결하고 요긴하다. 마음이란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것.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만 가지 힘을 다 갖추게 된다. 〈달마 관심론〉

▩어떻게 마음을 고르는가? 말세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른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적고, 삿된 것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를 테면 명예와 이익을 구하려고 그저 참선하는 겉모습만 보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동은 헛되이 세월만 보내게 되어 선정을 얻을 수 없다. 올곧게 선정을 닦는 마음과 그 이치가 상응하면 자기자신도 제도할 수 있고, 남들도 제도할 수 있어 드디어는 위없는 도에 다다르게 된다. 〈원효어록〉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늘 이치와 법도를 지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우환을 똑똑히 알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경집〉

▩선(禪)에는 가시(刺)가 있다. 계를 가지는 자에게는 계를 범할 가능성이 가시가 되고 근(根)을 보호하는 자에게는 몸을 치장할 가능성이 가시가 되고, 모든 사물의 이치가 이와 같다. 〈중아함경〉

▩배우는 이의 경지는 여래의 경지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배우는 이의 경지는 다섯가지 덮개를 끊고 머무르는 것이고, 여래의 경지는 다섯가지 덮개를 끊고 다시는 자라나지 않게 뿌리까지 끊는 것이다. 〈가마경〉

▩거친 선정을 닦는 것은 거치른 말(馬)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곡식만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탐욕의 번뇌에 따라 선정을 구한다. 〈집아함경〉

▩출가자들은 탐욕을 버리고 악한 법을 여의며 각(覺)과 관(觀)으로써 욕계의 악을 떠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初禪)을 얻는다. 〈중아함경〉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 없다. 현실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생각이 쉬어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이와같이 앉을 수 있다면 이는 부처님이 인정하는 좌선일 것이다. 〈유마경〉

목.소.리

참회정진에 들어가며

혜진
나눔의집 원장

승가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행의 현장으로 삼고있는 이곳 나눔의 집에서 단식정진에 들어갑니다.

시시비비로써 오늘의 한국불교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몇가지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조계종단에는 내부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존재합니다. 모든 승려는 경제적 평등과 복지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둘째, 신도들에 의한 보시는 몇몇 승려의 재산이 아닙니다. 모든 재정은 투명해야 하며 신도들은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불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인간방생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넷째, 불교의 자주권은 종종 집권자와 권력지향적인 일부 권승들이 밀착되는 과정에서 훼손되어 왔습니다. 불교는 종교로서의 자주권 회복과 그 존엄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종단분규가 해마다 치르는 한국불교의 고질적인 병폐니 이 순간만 지나면 조용해진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종단이 안정될 것이라는 말도 이제 더이상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각자각자가 깊은 참회의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를 일깨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종교의 역할 또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종단의 분규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모르는 곳에서 수행과 실천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불제자와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식참회가 한 개인의 참회를 넘어서서 침묵하는 다수의 뜻이라는 것을 사부대중 모두가 깨달아 정진과 개혁을 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기 2543년 11월 9일

*이 글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살며 수행하고 있는 혜진스님이 9일부터 10일간의 참회단식에 들어가며 발원한 내용입니다.

열린마당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15일 치러진 제 30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일반 정치판과 다를것없는 색깔론이 제기되는등 청정승단의 선거가 불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이라는 현 선거제도가 부처님 가르침과 전통적 승가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하며 도입한 선거제도가 교계의 현안으로 떠올라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과 '경선을 통한 직접선거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의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경선은 분파조장 화합 저해"

지광 〈익산사암연합회 회장〉

원래 불가의 선거는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추대하도록 돼 있다.

현재의 경선제도는 승가의 분열과 위계질서 파괴라는 막대한 수혈을 감수하고 있다.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상좌나 손상좌뻘 되는 선거인단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은 승납을 강조하는 승가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또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확실한 다수를 점하기 위해 승가내 분파를 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파에 가입하기를 종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선거로 말미암아 유실되는 삼보정재도 무시할 수 없다.

차제에 총무원장 소임도 권한을 줄여야겠지만 경쟁적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종단내부의 과열현상은 자칫 종권다툼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두렵다.

직접선거의 경우 과열혼탁한 상황과 승단위계질서 파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이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로의원을 비롯하여 각 본사 방장및 회주스님, 계단위원, 종회의원이 비밀투표로 적합한 소임자를 뽑아 합의추대하는 형식을 취하는 형태로 보완할 경우 선거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경선 불가피…제도보완 필요"

혜담 〈광주 각화사주지〉

조계종단은 권력있는 몇몇 스님들을 위한 종단이 아니라 전 종도들에 의한 종단이다. 선거는 그런 전 종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선거는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종책을 내놓고 종도들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종단의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부작용보다 장점이 많다. 때문에 당분간은 경선을 통해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 제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전국의 스님들이 선거에 술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승가의 위계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교구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각 교구 본사 주지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를 치름으로써 선거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선거에 임하는 종도의 의식전환이 관건이 될 것이다.

조계종은 선거를 통해 자체역량을 한 계단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나친 과열이나 아집, 반목적인 선거행태를 지양하고 출가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진정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선거가 되도록 공명정대한 경선과 바른 선택을 종도들은 바라고 있다.

"산중공의제 추대형식 검토"

조기룡 〈동국대행정학과 박사과정〉

총무원장은 일반사회조직의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와는 다른 종무행정 즉 종교행정의 대표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총무원장선거법에는 그런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세속법에서 본 뜬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 조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세속을 이끌어갈 종교가 그 자체에 종헌·종법을 가지고도 세속법에 해결의 길을 구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마는 것이다.

종헌·종법이 세속법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그 기술성에서 역시 헌법과 법률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각종 선거법이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기에 불교의 전통과 신성함을 살릴 수 있는 선출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불교의 근본정신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율장을 등한시하고 세속법에 의지하는 것은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불교의 전통을 구현하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담아낼 수 있는 율장에 바탕을 둔 총무원장선거제도 나아가 종헌·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산중공의제에 따른 만장일치 추대 형식도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1부기자〉

포교원-교육원 원장도 바뀌나

"5년 임기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 종사자들은 15일 새 총무원장 스님이 선출되면 또다시 각 원장 스님이 교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월21일 원장스님이 취임한지 1년도 안돼 또다시 포교원과 교육원의 책임자가 바뀐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책방향과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새 총무원장 스님이 당신의 의도대로 종무행정을 이끌어 가 위해 두 원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뜻이 없다 하더라도 현 원장과 부장 스님들이 스스로 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래저래 2 원장의 임기를 보장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종무원들은 1년도 채 안된 짧은 기간에 총무원장이 교체된 만큼 2 원장 스님만은 유임되는 것이 종무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교계에서는 별원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관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종단의 교육·포교 불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기 5년(1차에 한해 중임가능)인 포교원장과 교육원장이 그대로 유임될 지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결국 바뀌어 버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봉 1,000年 기도 大佛事 대한불교 금강총림 기공식 및 특별법회 축

모시는 글

귀의(歸依) 삼보(三寶)하옵고 우리나라 10대승지(十大勝地)의 하나인 소백산(小白山) 정봉(비로봉)에서 30리 아래 금계동 자락에 1000년 기도 대불사(大佛事)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불문에 스님 및 재가불자(在家佛子)님들을 모시고 금강총림(金剛叢林) 창건(創建) 기공식 법회를 갖게 됨을 널리 알립니다.

소백산(小白山) 금강사(金剛寺) 자리는 신라시대의 금강사라는 사지(寺址)로서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법기보살(法起菩薩)이 계신 정토(淨土)로서 직령(直靈) 줄기 혈장에 화엄(華嚴)에 총본사(叢本寺)의 도량(道場)을 창건(創建)하여 우주 현재의 그대로 부처를 각(覺)하여 일시 성불(成佛)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부처이후에 처음 화엄도량(華嚴道場)을 조성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소백산(小白山) 금강사(金剛寺)는 올바른 승맥(僧脈)을 이을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훌륭한 스님을 육성 및 배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1000년 기도 대불사(大佛事)에 많은 동참 바라옵니다.
성불(成佛)하십시오.

주지 혜원 합장

일 정

11월 27일, (음) 10월 20일

- 법 회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인사말씀
혜원 큰스님

◇법문
적멸자 월공 대선사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연예인 축하공연
○ 불교 합창단
○ 불교 풍물놀이

불사동참 안내

새천년 맞이
1,000年 기도 등달기

천년기도대불사 등접수 : 십만원
결망 불사 : 삼만원

· 송금방법 ·
235-016694-01-011
기업은행 / 예금주 : 금강사

금강사 오시는 길

연예인 축하공연

가 수 남 진
송대관
태진아
현 미
현 숙
최진희

M C 엄용수

기념품 증정
금강호신불

추첨을 통하여
108분에게 드립니다.

대한불교 금강총림 소백산 금강사 주지 혜원 합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711
전화 (0572) 636-6546 / (0572) 632-6546
팩스 (0572) 632-6545